



[유통]
편의점 업계
지역 '맛'에 주목
경제 살리고 맛 높이고
L1

metro[®]

Life 가격·퀄리티 다 잡았다
L6



[뷰티]
홈쇼핑업계
F/W 시즌 개막
L6

'빨간 약' 밀어 낸 신비의 상처치료제

식물 성분으로 흉터 없이 새살 '솔솔'... 국민연고 반세기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동국제약 '마데카솔'

동국제약 마데카솔은 발매 후 47년간 꾸준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상처 치료제 브랜드다. '마데카솔케어연고', '복합마데카솔연고', '마데카솔분말', '마데카솔연고' 등 시리즈 제품들로 구성됐다.

동국제약은 1970년 '마데카솔연고'를 최초 출시한 이후, 1985년 '복합마데카솔연고', 1993년 '마데카솔분말', 2009년 '마데카솔케어연고', 2017년 '마데카솔운밴드' 등 상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했다. 또한 2015년에는 다용도 타박상 치료제 '타바겐겔', 흉터치료제 스카지움겔, 일광화상 및 기저기발진 치료제 '넥스놀연고'를 출시해, 맞춤형 상처 치료제 풀 라인을 갖추어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유래

마데카솔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 사(社)로부터 들여와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당시 상처치료제는 '빨간약'이었던 시대에 다친 곳을 빨리 아물게 도와주는 피부 치료 연고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상륙했다.

마데카솔 시리즈 제품들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주 산지인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식물의 정량추출물을 원료로 만들 어졌다. 브랜드명 '마데카솔'은 이 식물이 자라는 곳, 바로 '마다가스카르' 섬의 지명으로 부터 유래된 것이다.

마데카솔의 주성분인 '센텔라 정량추출물'은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정상 피부와 유사한 콜라겐을 합성하도록 도와 새살을 빠르게 재생시켜줄 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 후 흉터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상처연고들은 성분에 따라 그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증상과 적용대상에 따라 적합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상처 종류에 맞는 치료제

동국제약은 다양한 상처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상처치료제 선택방법을 알리기 위해 '상처가 다르면, 선택도 다르게'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국제약은 이 캠페인을 통해 상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마데카솔케어', '마데카솔분말', '복합마데카솔', '마데카솔연고' 등 마데카솔 시리즈 제품들의 적합한 사용법을 홍보해 왔다.

대표 제품인 '마데카솔케어'는 비교적 감염의 위험이 적은 일반적인 상처나 민감한 피부의 상처에 적합해 영·유아 및 어린이에



마데카솔 TV 광고.



/동국제약

'센텔라아시아티카' 식물 추출물 콜라겐 합성 도와 새살 재생시켜

연고·분말 등 시리즈 제품 출시 상처 종류·특성에 따라 구분

축구·야구 꿈나무 육성 후원 국립공원에 구급용품 지원도

계도 사용할 수 있다. 주성분 중 74%가 식물 성분(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이며, 살균성분(네오마이신황산염)이 함유되어 있다. 항생제 단일 성분 제품들이 가진 살균작용 외에도 식물성분을 통한 피부재생 효과가 있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데카솔 종류

'마데카솔분말'은 100% 식물성분인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진물이나 출혈이 있는 상처 부위 적용이 가능하다. 상처부위의 통증으로 연고를 바를 수 없는 상황이나 아웃도어 활동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병상에 오래 누워 있

어 욕창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균화를 늘 작용해야 하는 병영생활에도 필수적인 제품이다.

'복합마데카솔'은 화상, 찰과상, 자상, 열상 등 염증이 걱정되는 상처나 이미 염증이 발생한 상처에 적합하다. 주성분은 역시 식물성분이며, 살균성분 외에도 항염 성분이 복합처방되어 있다. 덧나지 않으면서 새살이 빨리 돋아나도록 하고 염증을 방지해준다.

'마데카솔연고'는 분말과 동일하게 식물 성분이 100% 함유되어 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염증 및 2차 감염 우려가 없는 상처에, 짙지가 생기기 전후 꾸준히 바르면 흉터 예방에 효과적이다.

'마데카솔운밴드'는 역시 센텔라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으로 하이드로콜로이드 원단이 상처부위를 보호하고 삼출물을 흡수해 빠른 상처치유를 위한 촉촉하고 따뜻한 습윤환경을 조성한다. 상처 크기에 맞게 잘라 쓸 수 있는 타입 외에 규격화 된 사이즈를 상처 크기에 맞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밴드 타입, 젤을 뺀 후 혹은 여드름 등 작은 상처에 사용하는 원형의 스팟 타입으로 출시해 상처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데카솔 외에 시중에 판매되는 상처치료제

제 중에는 항생제 단일성분의 제품들이 많이 있다. 이들 항생제 단일성분 제제들은 살균력이 강해 상처 부위의 염증 치료에 적합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마데카솔처럼 새살이 돋는 식물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

◆사회공헌활동 및 스포츠 마케팅

동국제약은 '마데카솔'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공익 캠페인과, 스포츠 꿈나무 육성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동국제약은 2009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에 위치한 600여 개 구급함에 들어가는 구급용품을 후원하는 동시에, 매년 봄과 가을에 임직원들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행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의 '소아암어린이 봄나들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으며, 전국 1,000여 개 보육 기관에 구급가방을 무상지원하는 우리아이 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이 소비자들에게 받아 온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015년에 마데카솔 출시 45주년을 기념하는 '가족·사랑·건강·행복 케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마데카솔 힙페이지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어린이들을 응원하는 간단한 메시지를 올리면, 그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동국제약은 캠페인에 참여자 인원수에 따라 국제구호개발기구(NGO) 월드비전이, '사랑의 도시락' 3000개를 기부했다. '사랑의 도시락'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동국제약은 축구, 야구 종목의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한국유소년축구연맹과 한국리틀야구연맹을 후원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2012년부터 한국유소년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주요대회 참가팀들에게 마데카솔연고를 포함한 구급함과 구급용품 지원하고 있다. 2014년(준우승)과 2015년(우승)에서는 한국유소년축구 대표팀이 '경주국제축구대회'에서 마데카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또한 2011년부터 한국리틀야구연맹을 통해 매년 국제 친선 교류전을 치르기 위해 전지훈련을 떠나는 대표팀에 야구용품과 마데카솔이 담긴 구급함을 지원해 왔고, 2016년에는 '세계리틀리그 아시아-태평양&중동 지역 대회(APT)'도 후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